

# 갤러리에서 추천한 Top 9 from the AIPAD Photography Show

# NY

2013.4.4-4.7

2013 Park Ave Armory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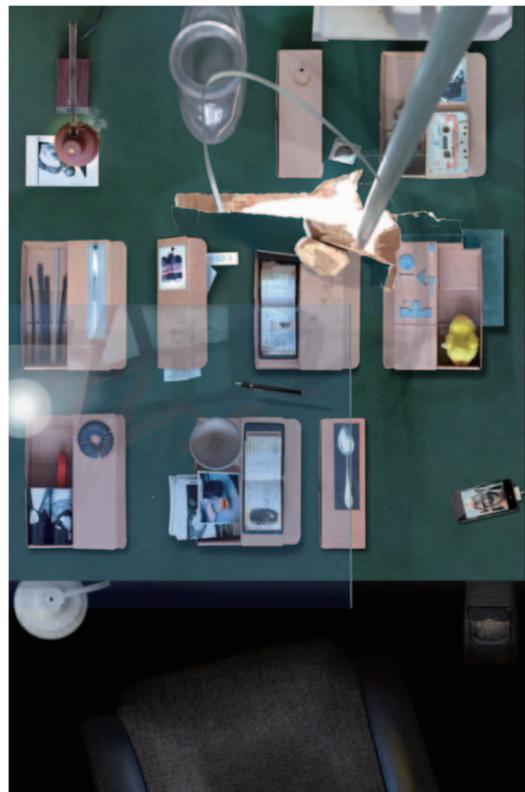
올해에도 어김없이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국제 사진 아트 딜러의 이벤트인 에이패드 AIPAD(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hotography Art Dealers)가 열렸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참석한 갤러리, 큐레이터, 컬렉터, 딜러, 그리고 사진가들의 축제와도 같은 이 이벤트 동안 수많은 작품들이 컬렉터의 손에서 손으로 활발하게 넘겨진다. 또한 사진시장의 트렌드와 영향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스테디 셀러 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에는 AIPAD의 전통적인 성향인 빈티지 프린트뿐만 아니라 컨템퍼러리 사진과 현대사진도 많이 선보여 젊은 성향을 띄기도 했고 먼저 열린 아모리 쇼에 참가했던 갤러리들은 오히려 대조적으로 빈티지 작품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부스를 만들어 클래식한 작품을 찾는 컬렉터들의 관심을 샀다.

갤러리마다 일년 동안 이 이벤트를 계획하고 컬렉터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철저히 큐레이팅된 부스를 선보이는데, 그 중 갤러리스트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 일지 사뭇 궁금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총 9개의 갤러리에서 그들의 부스에 있는 작품 중 한 작품씩을 추천 받아 보았다.

글 민혜령 뉴욕특파원

1. 갤러리 명
2. 갤러리 주소
3. 추천인
4. 작품명
5. 작가

추천인의 이야기



1. Andrea Meislin Gallery 안드레 메이슬린 갤러리, 뉴욕, 미국
2. www.andreameislin.com
3. Tracey Norman-Morgan 트레이시 노만-모건, 디렉터
4. Horizontal Study, 2012. © Courtesy the artist and Andrea Meislin Gallery
5. Ilit Azoulay 일릿 아슬라이(1972, 이스라엘)

Horizontal Study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작품을 대하면 우리는 작품 속의 사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한가지의 이야기로 묶어내려 하게 되고, 이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을 그 누군가에 대해 각자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애쓰게 된다. 하지만 작가 아슬라이의 작업은 완벽하게 작가에 의해 설치된 가상의 환경에서 생성되며,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이 공간의 완벽한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섬세한 디테일의 시험을 통해 디지털 작업으로 하나하나 붙여진 이 사물들로 그녀는 어떠한 향연과도 같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이 시각적인 수수께끼의 시리즈는 우리에게 리얼리즘을 고민할 만큼의 정보를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녀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공간에 굴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 ClampArt 클램 아트, 뉴욕, 미국
2. www.clampart.com
3. Brian Paul Clamp 클램 아트, 디렉터
4. "Untitled (Janet with Cat)," 1985/1996, Photogravure, © The Estate of Mark Morrisroe (Ringier Collection) at Fotomuseum Winterthur
5. Mark Morrisroe 마크 모리스로(1959-1989, 미국)

마크 모리스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이다. 마크는 낸 골딘, 잭 피어슨, 필립 로르카 디코르샤, 데이비드 암스트롱, 더그와 마이크 스탠 형제 등이 나온 유명한 예술학교인 보스톤의 뮤지엄 스쿨을 나왔다. 30세의 나이에 AIDS로 맞이한 불의의 죽음 이후 그의 동료들은 예술적인 실험을 서슴치 않는 그의 대담한 성향, 극단적인 야망으로 만들어낸 그의 작품들이 더 폭넓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내가 선택한 작품 "Untitled (Janet with Cat)"은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유쾌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브룩스 아담스(예술 비평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리스로의 사진 속에서 롤 플레이(역할 놀이)을 하는 젠더 밴딩 유스(Gender-bending youth: 가지고 태어난 성별을 거부하고 성전환을 하거나 중성의 성향을 보이는 젊은이들)에 속하는 예술가들과 그 외 20명의 젊은이들은 하이힐과 가발을 착용하고 나체인 채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이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하이펑크가 절정에 달했던 시절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편적인 문화의 모습이며 모리스로와 그의 친구들은 그 문화를 이끌어가던 위치에 있었으며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가며 그 최선상에 서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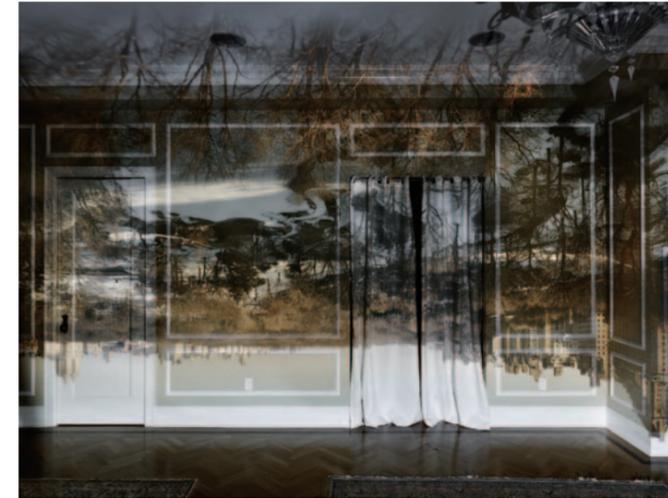
1. Danziger Gallery 덴지거 갤러리, 뉴욕, 미국
2. www.danzigergallery.com
3. Carly Ries 매니징 디렉터
4. Entrance, 2012
5. Susan Derges 수잔 더기스(1955, 영국)

개인적으로 수잔의 작품을 추천하겠다. 수잔은 오랫동안 사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카메라 없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녀는 감광유제를 바른 인화지를 물속에 담그고 그 위에 나뭇가지, 나뭇잎을 올려놓아 그 그림자와 물결의 흔적, 기포들이 섬세하게 담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달과 나뭇잎 등 주로 자연의 모습만을 담아오던 그녀의 최근 작품 중 하나인 Entrance에는 마치 게이트와 같은 울타리가 있다는 점에서 내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강렬한 색감과 함께 이 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갈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에서 우리를 차단하고 있는 듯도 하며, 마치 꿈속에서 마주할 듯한 모습이다.



1. 갤러리 명
2. 갤러리 주소
3. 추천인
4. 작품명
5. 작가

#### 추천인의 이야기



1. Edwynn Houk Gallery  
에드윈 호크 갤러리, 뉴욕, 미국/ 취리히, 스위스
2. www.houkgallery.com
3. Mariska Nietzman 마리스카 니츠만, 컨템포러리 아트 디렉터
4. Camera Obscura:  
View of Central Park Looking North, Winter, 2013
5. Abelardo Morell 아벨라도 모렐 (1948, 미국, 쿠바태생)

사진 안에서 시간과 기록의 흐름은 작가 아베 모렐에게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다. 그의 카메라 옵스큐라 사진은 수 시간 동안의 노출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테크놀러지에 의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한 이미지 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선택해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즉, 수 시간이 흐르도록 하는 대신 원하는 순간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모렐은 정교한 기술로 과학적인 엄격한 기준 위에 철학적인 접근의 조화를 찾아내며, 모더니스트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콜라주나 유리위에 에칭을 하는 Cliché Verre 작업, 또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위해 야외에 텐트를 치는 등의 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갤러리가 선택한 이 작품은 뉴욕 맨하튼의 5번가에 위치한 플라자호텔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로 만들어졌으며 봄, 여름, 가을의 이미지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1. Gallery 339 갤러리 339, 필라델피아, 미국
2. www.gallery339.com
3. Martin H. McNamara 갤러리 오너
4. Carnival, 2006
5. Kelli Connell (1974, 미국)

이번 AIPAD에서 특히 켈리 코넬의 작품을 보여주게 되어 기뻐했던 것은 그녀의 작품이 한순간 시선을 잡아두는 아름다운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사진사에서 디지털 합성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코넬은 이 새로운 작업방식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도구와 테크닉이 그 자체로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예술로 살아난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이 작품이 속한 Double Life 시리즈에서 코넬은 공공장소와 사적인 상황에서 두 여인의 역할을 해낸다. 한 여성으로 모든 상황에서 두 여인의 역할을 하여 여러 컷을 촬영하고 디지털로 합성을 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을 한다. 디지털 합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 없이 코넬은 완벽하게 두 이미지를 합성해 냈다. 그리고 보는 이들은 이 두 여인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보며 여러 관점 즉, 그들의 관계, 정체성, 성별 역할 등의 질문을 갖게 된다.

1. Howard Greenberg Gallery

하워드 그린버그 갤러리, 뉴욕, 미국

2. www.howardgreenberg.com

3. Karen Marks 카렌 마크, 갤러리 세일즈 디렉터

4. The Dwarf, 1958, Gelatin silver print © Bruce Davidson/Howard Greenberg Gallery, New York

5. Bruce Davidson 브루스 데이비드슨 (1933, 미국)

“내가 이 난장이를 처음 본 것은 혹독하게 추운 어느 봄 날 오후 서커스 텐트 앞에서였다. 그의 기형적인 상체, 정상적인 크기의 두상, 성장을 멈춘 다리는 나를 매혹시키는 동시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내 키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완전히 제압하는 듯했다. 내가 카메라를 들기 전에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슬프고도 고요하게, 그리고 짙어진 담배 궤초를 마지막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금관악기의 찢어지는 듯한 연주가 시작되자 그는 한순간 빛 속으로 사라졌고 텐트안의 또 다른 세상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이름은 Jimmy Armstrong 이었지만 서커스 홍보지에서 그는 “Little Man” 이라고 불렸다.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쇼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히죽히 죽 웃었지만 지미는 평온하게 자체력을 보였다. 수주가 지난 후 내가 서커스단과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야 했을 때 나는 지미에게 그의 손에 쥐어질 만한 작은 미니어처 카메라를 선물했다. 우리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할 때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였어.” 라고” -브루스 데이비드슨.



1. M+B Gallery (M+B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 www.mbart.com

3. Benjamin Trigano 벤자민 트리자노, 갤러리 대표

4. #3102, 2006-2009 © Mike Brodie, Courtesy of M+B Gallery, Los Angeles

5. MIKE BRODIE 마크 브로디 (1985, 미국)

마크 브로디가 그의 이동에 대한 불타는 욕망을 연소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하며, 기차에 뛰어 올라타고, 히치 하이킹을 하며 미국을 여행했던 삼년은 그에게 더없이 집중적이고 다작을 남긴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미국 여행사진에 흔치 않은 진정성을 담은 컬렉션으로 남겨졌다. Kerouac의 여행소설 On The Road와 맥락을 함께하며 이 사진들은 브로디와 그의 친구들이 거처오고 살아내야 했던 길들어 지지 않은 모험 정신과 견잡을 수 없는 자유로움을 포착했다. 비록 브로디는 사진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의 사진은 역사적 사진 매체를 인식하지 않은 솔직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더욱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브로디의 사진은 로버트 프랭크, 윌리엄 에글스톤, 워커 에반스, 낸 골딘, 라이언 맥킨리의 사진의 뒤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크 브로디는 2007년 이렇듯 어메리칸 포토그래퍼로 Baum Award를 받았으며 뮤지엄과 갤러리 전시는 물론 SFMOMA, 버클리 뮤지엄 등에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2013년에는 그의 작품집 A Period of Juvenile Prosperity가 출간되었는데, 이 같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지 메이킹에 보였던 열정만큼 큰 욕망으로 디젤 정비공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현재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다.



1. Stephen Bulger Gallery 스티븐 벌거 갤러리, 토론토, 캐나다

2. www.bulgergallery.com

3. Stephen Bulger 스티븐 벌거, 갤러리 대표

4. Darkroom, Building 3, Kodak Canada, Toronto, 2005

5. Robert Burley 로버트 벌리 (1957, 캐나다)

이 작품은 최근 Ryerson 이미지 센터와 프린스턴 건축지에도 게재되었던 로버트 벌리의 The Disappearance of Darkness 시리즈 중 하나이다. 이 시리즈에서 작가는 넓은 부지의 수많은 빌딩들에서 인화지와 필름을 제조하던 코닥 캐나다가 문을 닫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출범 이후 코닥은 직원을 줄이고 불필요해진 건물들을 퇴역시키기 시작했다. 작가는 감광제품 생산을 위해 철저하게 보안되었던 비밀의 방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외부, 내부의 이미지들은 이제 사진가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미지로 남았다. 작가는 미국 로체스터와 프랑스의 코닥사, 메사추세츠와 네델란드의 폴라로이드사, 영국의 일포드, 벨기에의 아그파 등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혀갔다. 이 작품은 사진사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산업시대로 돌아가 전통을 고집하던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기록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1. Weinstein Gallery 웨인스타인 갤러리, 미네아폴리스, 미국

2. www.weinstein-gallery.com/

3. Leslie Hammons 레슬리 하몬스, 디렉터

4. Angela, Los Angeles, 2011 © IMAGE COURTESY WEINSTEIN GALLERY

5. Alec Soth 알렉 소스 (1969, 미국)

웨인스타인 갤러리에서 선택한 작품은 갤러리가 위치한 곳인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출신의 사진작가 알렉 소스의 새 작품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알렉은 그가 여성들에게서 보는 보편적인 혼란과 감정의 해석을 보여주고자 한다. 매그넘 작가이기도 한 알렉은 미국의 도시를 여행하며 특정한 주제나 삶을 쫓아 작가의 내성이 담긴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듯 촬영을 한다. 이 결과물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절제되고 한편으로 암울하지만 작가만의 네러티브가 담긴 미국사회의 초상으로 남는다. 나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의 모습을 담은 Niagara, 속세를 떠난 난민을 기록한 'Sleeping by the Mississippi' 외에도 'Dog Days, Bogota', 'The Last Days of W' 등의 시리즈가 있다.